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學校 經濟 敎育의 方向

박 용 경*

目 次

- I. 序 論
- II. 經濟 現況과 展望
- III. 學校 經濟 敎育의 現況과 必要性
- IV. 學校 經濟 敎育의 方向

I. 序 論

그동안 우리나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하여, 199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0,076달러를 달성하였고, 1996년에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고, 세계 제 11위의 경제 규모를 지닌 성장 국가가 되었으나, 1997년에 들어 연쇄적인 대기업 부도와 동남 아시아 외환 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대외 신인도가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외국 투자가와 채권 은행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자, 결국 IMF의 긴급 자금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부족한 외환을 IMF의 구제 금융으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적 주권이 유보되고, 대량의 실업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경제는 환율과 금리가 하락 안정 추세에 있고,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외환 보유고가 대폭 증가하여 IMF 차입금 중 28억 달러를 상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외 신인도가 개선되고 있고, 외국인의 직접 투자도 작년 10월 이후 증가 추세에 있는 등 가시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IMF도 최근 우리 경제가 '비상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 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해 '비상 상태'를 벗어나 '정상 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하고, 그동안 우리 정부와 1년에 4차례 열었던 정책 협의를 2차례로 줄이기

* 사회교육과 교수

로 합의했다. 이는 IMF의 '정책 간섭'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고, 반대로 우리 정부의 '정책 자율권'이 대폭 늘어남을 의미한다. 삼성금융연구소 정기영 소장은 "IMF가 협의의 횡수를 줄인 것은 한국이 위기 상황을 벗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우리 정부가 경제 정책의 자율권을 확보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 반기별 협의로 전환 : 정부와 IMF는 그동안 분기별로 진행해 왔던 정책 협의를 반기별 협의로 전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IMF와의 정책 협의는 오는 7월과 내년 1-7월의 3차례만 남게 됐다. 정덕구 재경부 차관은 "정부가 반기별 협의로 바꾸자고 먼저 요청했으며, IMF도 굳이 분기별 협의를 계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IMF가 구제 금융을 계속 지원해주는 내년까지는 한국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없는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을 넘긴데다, 브라질, 러시아 등 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IMF도 개입 강도를 낮추게 됐다는 해석이다.

◆ 저금리 정책 지속 : 우리 정부와 IMF는 그동안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에 기여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물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향서에 명기하기로 했다. 저금리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IMF가 동의한 셈이다.

◆ 성장률 2% 이상 전망 : 양측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동시에 의향서에 "국내의 소비 심리 회복과 국제 여건에 따라서는 2%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고 적시했다. IMF는 작년 4분기 협의에서는 99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로 전망했지만, 이번 협의에서는 오히려 우리 정부의 전망치(2%)보다 높아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도 IMF는 우리 정부보다 낙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했다. 정부는 수출 여건이 나쁘고 수입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 전망치인 200억달러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IMF는 200억 달러보다 많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결국 양측은 '98년보다 줄겠지만 상당한 흑자가 지속된다'는 선에서 합의했다.¹⁾

이와 같은 IMF와의 협의 내용은, 작년부터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경제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도덕적 解弛 등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전국민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합심하여 매진한 결과라 하겠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금융 시장과 외환 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구조 개혁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대외 신인도가 개선되고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실물 경제

1) 조선일보, "정부-IMF합의", 1999년 2월 4일(목), 3면.

도 회복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등 우리 경제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부실 금융기관들이 퇴출되면서 금융기관들의 재무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노사정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노동 시장의 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사회 안전망의 확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었다. 최근에는 산업 생산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어음 부도율이 감소하는 등 경기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의 상향 조정, 원화 강세, 금리 하락, 무역수지 흑자 및 외환 보유고 대폭 증가²⁾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 2일에 폐막된 제 29차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WEF)³⁾ 연차 총회에 참석한 미국의 엘 고어 부통령을 포함한 많은 참석자들도 우리 경제 상황의 호전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낙관론은 예기치 못했던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우리 정부로 하여금 자만에 빠져 개혁 정책을 완화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아직도 하이테크 산업보다는 규모의 경제나 재래 산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재벌들이 자동차, 반도체, 석유 화학 부문의 합병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잉여 생산 설비 및 인력 감축에 대한 저항이 있으며, 재벌의 과도한 부채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는 부채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보다 재무제표 개선을 위한 자산 재평가나 有償 增資로 인한 것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금리 인하로 재벌은 자산 매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Goldman Sachs社는 실업과 임금 삭감에 대한 우려로 우리의 소비 지출이 1999년에도 5.4% 하락할 것이고, 세계 경제의 침체로 우리의 수출 증가도 둔화되어, 올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⁴⁾

게다가 최근 세계 무역 시장에서는 미국과 유럽 연합(EU)간의 바나나 협상마저 결렬되고, 미국이 유럽 연합에 철강 수입 개방을 요구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쇠고기 수입에 대한 차별을 들어 WTO에 제소하였다. 그리고 인천 국제공항 건설 공사에 외국업체의 참여를 배제했다며 WTO에 제소할 방침임

2) 경제 위기가 발생했던 97년 12월말에 39억 달러이던 외환 보유고가 올해 1월 15일 현재 49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3)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WEF)은 저명한 기업인, 학자, 정치가, 저널리스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국제 민간 회의로서 1971년에 창설되었다. 1981년부터 매년 1, 2월에 스위스의 '다보스'에 모여 회의하므로, "다보스 회의"라고도 한다. 올해에는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열렸다.

4) FINANCIAL TIMES, "Hidden dangers of South Korean recovery", 1999년 1월 28일(목)

을 밝혔고, 포철을 비롯한 공기업과 한국 통신과 이동 전화 등 통신업체의 외국인 지분율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증폭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자유 무역을 신봉하던 미국이 보호 무역주의 성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이 지난해 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고, 올해에는 무역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나 2,0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갈수록 확대되는 무역 전쟁은 수출로 경제 활로를 찾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미국 정부가 1997년 말로 효력이 끝난 강력한 대외무역 보복법인 수퍼 301조⁵⁾를 지난 1월 26일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부활시켰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기반 유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수퍼 301조가 주로 對美 무역흑자 폭이 큰 일본과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수퍼 301조가 우리나라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올해는 더 이상 환란을 이유로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부터 유예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지난 2월 3일, 리처드 피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미국은 지금까지 외국 상품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다하였으므로, 이제는 해당 국가들이 시장을 개방할 임무를 수행할 때”라고 말하여, 수퍼 301조 발동을 통한 시장 개입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이와 같은 외부 환경 때문에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낙관론에 대해서, 우리는 성급하게 자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 경제는 내부적으로도 경제 개혁이 아직 시작 단계에 있고, 기업 개혁은 사업 교환의 마무리와 과잉 생산 설비의 축소와 과다한 부채 정리 등 본질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다보스 회의의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경제 회생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구조 조정의 조속한 마무리와 경기의 본격적 회복 및 대외 신인도의 획기적 제고를 통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Knowledge Based Economy)⁶⁾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내실있는 질적 성

5) 이번의 수퍼 301조는, 종래의 수퍼 301조가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의 제출 후 180일 이내에 “우선 협상 대상 외국 관행(PFCP)”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에 비해, 그 기간을 90일로 대폭 단축하였음이 특징이다. 이것은 미국의 수출을 가로막는 외국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양자간 협상을 신속히 개시함으로써, 가능한 빨리 그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6) 지식 기반 경제의 특징은 첫째, 지식의 ‘정보화’이다. 정보화된 지식은 체계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컴퓨터망을 통해 전달도 용이하다는 것이다. 둘째, 지식이나 기술이 대학이나 연구소 등 ‘지식 창출의 근원지’에 머물러만 있지 않고 실제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셋째, 지식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였다. 지식 기반 경제에 관하여 수년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OECD는 '지식'을 생산성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생산 요소로 주목하고 있다.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지식'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창출되고 획득된 지식의 이해와 습득 그리고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한 교육 제도 개혁이 실현되어야 하고, 지식의 가치를 존중하고 형식적 학력보다는 실질적인 전문성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만 할 것이다.

'지식'은 결국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지식 기반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인 그 사회의 제도, 조직, 문화도 궁극적으로는 사람에 의해 형성 운영되기 때문에, 21세기 더욱 인적 자원을 형성하는 교육이야말로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그동안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고 고도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근면한 근로 자세와 높은 교육열⁷⁾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부 구조의 구조 조정만으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경제 위기의 해결이 불가능하며, 이와 더불어 상부 구조인 경제 의식의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현재는 지식의 획득자이지만, 미래의 지식의 창출자요, 모든 제도와 조직과 문화의 형성자이며 운영자가 될 학생들이, 시장 경제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경제 현상에 대한 분석 능력과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추게 되면, 경제 문제에 대해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길러지고, 합리적 소비 생활을 영위하게 되며, 건전한 경제 의식을 갖게 된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생산, 소비, 저축, 투자의 주체로서 경제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므로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의사 결정을 하고, 건전한 경제 행태를 견지하고, 올바른 경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경제 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7) 다니엘 벨과 미래학자나 사회학자들은 후기 산업 사회에서는 '지식'이 가치 창출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최근에는 '지식 경영'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는, 세계는 지식 경제로 진입하고 있으며, 기존의 경영 방식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단언하였다. 이처럼 '지식'은 21세기 세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생산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지식은, 첫째 한 번 생성된 지식은 사용의 배타성을 지니기 어려운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고, 둘째 아무리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으며 계속 창출이 되는 풍부성이 있고, 셋째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수확 체증의 특성이 있다.

8) 송병락, 『한국경제론』, (서울:박영사, 1995), p.385.

또한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새로운 도전과 요구는 사회과 교육의 한 영역인 학교 경제 교육의 방향에 중요한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21세기 우리 사회의 모습은 정보화, 세계화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경제 교육은 정보화, 세계화로 특징지워지는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대처해야만 한다. 이에 본고는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학교 경제 교육의 필요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학교 경제 교육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經濟 現況과 展望

경제 위기로 인하여 대량 실업이 발생되고, 중산층이 침하되고,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등 우리 사회에 극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 때 우리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여기던 시절이 있었지만, IMF 구제 금융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난 작년 6월 현재, 자신이 중산층에서 하층으로 추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0.4%로, 이제 우리 국민 가운데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3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IMF 이전 중산층 인구 10명 중 4명 가량이 하층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신이 중산층에서 하층으로 하락한 이유를 실질소득 감소, 불안정한 소득, 재산가치 하락, 실직,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IMF 이전에 비해 지출은 25% 줄었지만 소득은 30% 가깝게 급감하여, 그들의 가계는 적자 가계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 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 외식을 이전보다 줄였고, 低價의 화장품을 찾게 되었고, 바꾸려던 가전 제품과 자동차를 더 쓰기로 했고, 파출부 이용을 줄이거나 중단했고, 배달받던 우유나 주스를 중단했고, 자녀 과외나 학습지를 줄이거나 중단하였다.⁹⁾

그리고 5개월 지난 작년 11월 현재, 우리 국민의 가구 소득과 소비는 더 줄어, 소득은 IMF 이전에 비해 34.1%나 줄었고, 지출 규모는 35.7%나 줄어, 소비 감소가 소득 감소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가계 저축도 커다란 영향을 받아, IMF 이전에는 소득의 32.3%가 저축되었지만, 현재는 소득의 16.7%만이 저축되고 있다. 또한 전체 가구의 42.0%에서 거의 저축이 하고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이것은 IMF 이전 8.5%의 무려 5배에 해당된다. 남편의 용돈도 줄었고, 금융기관 거래시 안전

9) 현대경제연구원, 『IMF 시대, 중산층의 생활과 의식 변화』, (1998. 6).

성을 중시하게 되었고, 신문의 경제면을 많이 보게 되었고, 구조 조정 등으로 절대적인 업무량도 많아졌고, 일이 없더라도 일찍 퇴근하기 어려운 불안감 때문에 귀가 시간이 늦어진 경우도 있는가 하면, 술자리가 줄었거나 있더라도 일찍 끝내는 편이 많아져서 귀가 시간이 빨라지기도 하였다. 또한 IMF 경제 체제는 우리 가족 구조에도 변화를 주어, 응답 가구의 13.9%는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가족간 다툼이나 불화가 늘어났다. 이런 현상은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더 많았다. 반면 전체 가구의 10.5%는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 더 화목해진 것으로 조사되어, 경제 위기가 가족 성원간의 내부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IMF 돌입 6개월 시점에 비해 우리 국민의 가정 경제 전망은 약간 낙관적으로 변화였다.¹⁰⁾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은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고, 필사적으로 절약하도록 만드는 등 경제 생활상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어려움 가운데서 국민들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빨리 회복되기를 갈망하지만,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견해가 우세하다.

작년 12월중 산업 동향의 결과를 보면서, 경기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대체로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견해를 보이는 반면, 업계와 전문가들은 아직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비가 위축되어 있고 건축허가 면적이 크게 감소한 점 등을 들어 우리 경제가 아직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고 경기의 저점 통과 여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경기 동향에 대한 양론이 존재하지만, 우리 경제가 아직 구조 조정을 마무리 한 것도 아니고, 가변적인 세계 경제 시장과 노동계의 불안 등 국내 시장의 요인들이 경제 동향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 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자세히 살펴, 앞으로의 대책에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1. 失業 現況과 展望

외환 위기 발생 직전인 1997년 10월에는 실업자수가 45만명, 실업률 2.1%이던 것이, 1998년 12월에는 실업자수가 166.5만명, 실업률 7.9% 수준에 달해 불과 1년 여만에, 실업자수와 실업률이 거의 4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1998년 12월의 실업자

10) 현대경제연구원, 『IMF 1년:가정 경제 어떻게 변화했나』, (1998. 11. 13).

수와 실업률이 높은 것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구직난 등으로 인한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다. 그러나 1997년 12월 외환 위기 발생 이후, 매월 급증하던 실업이 8개월째부터 안정되어,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세가 우려되던 실업자의 수가 연평균 146만명 수준으로 다소 억제되어 연평균 실업률이 6.8%에 머물렀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이어 고실업이 지속되고 실업이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상당 기간 지속될 고실업 시대에 대비하여, 실업 증가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준비가 필요하고, 직업 훈련에서도 수요자 중심, 유망 직종 개발 등 훈련 시스템을 더욱 내실화할 필요가 있고, 근원적인 일자리의 창출 대책 등 중·장기 실업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¹¹⁾는 올해 1/4분기 중에는 실업이 신규 졸업자의 노동 시장 진입 등의 계절적 요인과 구조 조정으로 월평균 170-180만명대로 계속 증가하였다가, 하반기부터는 구조 조정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회복의 효과로 인하여 150만명대로 안정되어, 연간 전체로는 실업자가 163만명, 실업률은 7.5%의 수준으로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1〉참고).

〈표 1〉 1999년도 실업 전망

(단위 : 천명, %)

	연 평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실업자수	1,632	1,759	1,638	1,552	1,581
실업률	7.5	8.3	7.5	7.1	7.2

자료: 노동부, 『1999년 종합 실업 대책』, (서울 : 노동부, 1999. 1.19).

주 : 실업률은 경제 성장률을 2.0%로 가정하였을 때의 전망치임.

특히 올해 3-4월까지의 재벌의 사업 교환, 공기업의 구조 조정, 신규 졸업자의 구직 등으로 인해 실업자수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므로 실업 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실업자들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의 심화와 노동 능력의 상실이 우려된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에 공공 근로와 인턴 사원제를 대폭 확대하여 실업자의 생계 보호와 노동 능력 유지에 힘을 쓰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고용 창출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보, 통신, 문화, 관광 등 고부가가치형 지식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해 성장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11) 노동부, 『1999년 종합 실업 대책』, (1999. 1. 19).

정부의 실업 중기 정책의 목표는, 적극적인 고용 창출 정책을 통해 2002년까지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률을 5% 수준으로 낮추고, 실업자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과 실업 대책 전달 체계를 완비하는데 있다. 고용 창출을 위하여, 정부는 2001년까지 부가가치가 높고 파급 효과가 큰 분야인 정보 통신 분야에서 110만여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고용 창출을 통한 실업 극복과 활력있는 경제의 재건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노사정을 비롯한 각 경제 주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우선 1999년 정부의 실업 대책은, 첫째 일자리 창출 유지, 둘째 취업 능력 제고, 셋째 사회 안전망의 확충, 넷째 실업 대책 전달 체계 확립 등 4가지 사업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를 위하여, 구조 개혁의 내실화와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SOC 투자 확충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창업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해외 취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둘째, 취업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직업 훈련 체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지식인¹²⁾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을 확대하며, 직업 훈련 수료생의 취업률 제고를 통해 직업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셋째, 사회 안전망의 확충을 위하여, 모든 사업장에서의 실직자에게 실업 급여를 지급하고, 공공 근로 사업의 실시를 통해 소득을 지원하고, 한시적 생활 보호의 확대, 실업자 대부 사업, 중고생 학비 감면과 결식 초·중·고등학생의 중식 지원 등을 통해 실업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한다.

넷째, 실업 대책의 전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직업 안정망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여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의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고용 안정 정보망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업 대책 D/B와 실업자 Profiling 체제 등을 구축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에는 실업 해소의 근본인 노동 시장 유연화와 인력 수요 창출의 근원인 민간 기업의 가동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 미흡한 편이다. 지식 기반 산업 위주로의 지원과 개편을 계획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능력 제고와

12) '신지식인'은 '자신의 분야에서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발상으로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혁신하고, 일정한 윤리의식 등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신지식인'은 소수 엘리트 집단을 일컫는 말이 아니며, 국민 누구나가 어느 직종, 어느 위치에 있든지간에 주어진 일을 개선하고, 혁신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을 의미한다.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민간 기업의 신규 노동 수요 창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노사 문제는 실업 대책과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노사 갈등 완화를 위한 방안이 실업 대책의 연계선상에서 제시되지 못하였다. 또한 1/4분기 내지 상반기 이후에는 경기 회복에 따라 실업률이 서서히 낮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이외에 별다른 추가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¹³⁾

정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동안 5% 수준의 경제 성장 전망하에서도 신규 노동력이 매년 25-30만명씩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빠른 기간내에 실업률의 안정은 한계가 있으며, 특히 구조 조정과 시장 기능의 활성화 등이 지연되면, 고용 창출이 없는 성장으로 7%대의 고실업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용 효과가 높은 지식 기반 산업과 주요 서비스 산업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창출형 성장 정책을 추진할 경우, 실업률은 1999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5%대로 안정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표 2>참고).

〈표 2〉 실업 전망

(단위 : 천명, %)

	1998			1999			2000	2001	2002
	연 평 균	상 반 기	하 반 기	연 평 균	상 반 기	하 반 기			
경제성장률	-5.9	-5.4	-6.4	2.0	0.8	3.3	4.7	5.1	5.3
실업자	1,463	1,334	1,593	1,632	1,698	1,566	1,514	1,401	1,281
실업률	6.8	6.3	7.4	7.5	7.9	7.1	6.8	6.2	5.5

자료 : 노동부, 『1999년 종합 실업 대책』, (서울 : 노동부, 1999. 1.19).

주 : 경제 성장률은 “중기 재정 계획” 상의 전망치임.

2. 債務 現況과 展望

정부는 올해에 우리나라의 순대외 채권이 사상 처음으로 負에서 正의 상태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998년말 총외채는 1,514.6억 달러¹⁴⁾. 총대외 채

13) 현대경제연구원, 『IMF 경제 정보』 IEI 99-03, (1999. 1. 28), pp.18-20.

권은 1,298억 달러로 216.6억 달러의 순외채가 있었는데(〈표 3〉참고), 올해에는 약 20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가 생겨, 1999년말에는 正의 순대의 채권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대외 채무와 채권 동향

(단위 : 억 달러, %)

	1996년말	1997년말	1998.11 말p	1998년말p	연증증감율
총 외 채	1,643.4	1,580.6	1,524.5	1,514.6	△66.0
대외채권	1,114.5	1,053.8	1,325.0	1,298.0	244.2
순 외 채	528.9	526.8	199.5	216.6	△310.2

자료: 재정경제부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외 채권 중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또는 남미 등과 연관된 채권 중 모라토리움, 디폴트 등으로 받기 어려운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유동화하기 쉬운 형태의 자산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해외 채무 중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 채무 구조가 얼마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지, 단기 채무 중에서 핫머니화 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히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채무 총액과 함께, 채무 구조를 꼼꼼히 살펴야만 한다. 세계 경제는 작년과 같은 1-2% 성장에 머무는 침체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¹⁴⁾ 개도국은 금년의 위기 국면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은 금년보다 침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의 교역 신장률도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 지속에 따라 4%대에 그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해외 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수출 증대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금의 구조 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우리 경제가 정상화되었을 때에도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는 산업 구조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4) 1998년말 현재 총외채를 만기별로 구분하면, 장기 외채가 1,189.3억 달러(78.5%)이며 단기 외채는 325.3억 달러(21.5%)이다. 부문별로 구분하면, 정부 부문이 365억 달러(24.1%)이며, 국내 금융기관이 578.9억 달러(38.2%)이고, 외국은행 지점이 139.8억 달러(9.2%)이고, 민간 부문이 430.9억 달러(28.5%) 등이다.

15) 올해 1월 16일 Economist誌 산하 경제예측 기관인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는 금년중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 2.3%에서 1.3%로 낮아질 것으로 수정 전망하고 있다.

3. 外國人 投資 現況과 展望

그동안 정부는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에 의한 M&A 및 토지 취득을 전면 자유화하고, 공기업 민영화 계획과 외국환 거래 자유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의 지원 체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98년 외국인의 투자는 1,398건에 8,852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 1962년부터 1997년까지¹⁶⁾의 총외국인 투자 누계액 246억 달러의 36%에 해당되어, 1998년은 우리 경제에 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의 元年이 되었다.

이 규모는 1997년 외국인 투자 규모인 1,055건, 6,971백만 달러에 비해, 건수로는 32.5% 금액으로는 27.0%가 증가한 것으로, 지난 1993년 이래 6년째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작년에는 특히 M&A 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¹⁷⁾

월별 외국인 투자 금액 면에서, 1998년 12월에는 외국인 투자가 159건에 1,943백만 달러에 달하여 1개월간의 투자 금액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¹⁸⁾ 이 투자 금액은 1995년도의 연간 전체 투자 금액인 1,941백만 달러를 상회하는 규모이다(<표 4>참고).

이처럼 외국인 투자가 작년에 크게 증가한 것은 대통령의 정상 외교 등을 통한 투자 유치 노력과 우리 경제의 구조 조정 노력 등에 따른 전반적인 대외 신인도

16) 외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 투자는 1962년에 처음 이루어진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 국내 총고정자본 형성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여,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20% 수준이나 선진국의 4.4% 및 세계 평균 수준인 5.2%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17) 재정경제부, 『1998년중 외국인 투자 동향』, (1999. 1) 작년에 기존 주식 취득 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 금액은 총 232건에 1,241백만 달러로서 총 외국인 투자액의 14.0%를 차지하여, 1997년의 699백만 달러, 10%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장 인수 또는 사업부문 인수 방식의 투자를 포함할 경우, M&A 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는 총 외국인 투자의 53.1%로 비중이 높아진다.

18) 1998년 12월 중 외국인 투자의 주요 내용은, 암코 코리아 6억 달러(미국, C.I.L.사 아남 반도체 광주 공장 인수), 페어 차일드 코리아 반도체 4.6억 달러(미국, Fairchild사, 삼성전자 부천반도체 공장 인수), SK엔론 2.4억 달러(미국, Enron사, SK와 도시가스 합작투자), 컬럼비안 케미컬즈코리아 0.9억 달러(미국, Columbian Chemicals사, 금호석유 화학 카본블랙사업 인수) 등이다.

〈표 4〉 연도별 외국인 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93	'94	'95	'96	'97	'98
투자금액	1,044	1,317	1,941	3,203	6,971	8,852
증가율	(16.8)	(26.1)	(47.4)	(65.0)	(117.6)	(27.0)

자료 : 재정경제부

주 : ()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회복과 1998년 11월 17일부터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시행되어 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 구조 조정이 구체화되고 경기 회복과 국가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되므로 제고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적극 활용하여, 장기 안정적인 해외 산업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외국인 투자 규모를 작년대비 69.5% 증가하여 GDP 대비 8%인 150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⁹⁾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 인센티브 제도와 원 스톱 서비스 체제의 확립 등 외국인 투자 지원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産業 現況과 展望

국내 5대 그룹이 반도체 등 7개 업종과 대우 전자와 삼성 자동차의 맞교환 등 대 기업간 사업 교환의 원칙에 합의한 지 2달이 지났으나, 사업 교환의 핵심인 반도체, 자동차와 전자 등은 사업 교환의 마무리가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각사의 노조들이 사업 교환 자체에 반대하면서 조업 중단, 시위와 파업 등을 벌여, 생산과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하청업체와 협력업체가 도산하고, 해외 바이어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어, 대외 신인도 회복으로 가까스로

19) 외국인 투자 유치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한 무역투자 진흥공사의 외국인 투자 지원센터가 지난 1월 31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의 시장 잠재력과 풍부한 인적자원 그리고 기술적 기반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금리와 환율의 불안, 회계제도의 불투명, 노동조합의 非호의적인 태도, 지나친 행정규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정리해고와 국부 유출 및 국가 경제의 대외 종속을 두려워하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 등을 투자의 걸림돌로 꼽았다.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전자와 자동차 부문에서 빚어지고 있어 더욱 걱정이다.

이번의 사업 교환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으나, 지금은 사업 교환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 우선 기업들이 정상화되어 생산하고 수출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전체가 사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재벌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노조 또한 대국적인 현실 인식과 협력적 공존을 모색해야 하고, 정부는 사업 교환에 관여한 이상 적극적인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정부 주도의 산업 발전 전략의 추진으로 시장 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구조 조정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고위 기술 산업²⁰⁾에서는 R&D 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저위 기술 산업으로 갈수록 R&D 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R&D 투자가 산업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대부분 중저위 이하 기술 집약 산업에 속해 있으며, 고위 기술 산업은 부가가치 비중과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²¹⁾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약화되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21세기 선진 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원리에 의한 산업 발전 체제를 확립하고, 구조 개혁을 통한 시장 기능의 활성화와 지식 인프라 구축과 산업 환경 개선 등에 노력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산업 구조면에서는 지금의 대규모 장치 산업과 대량 생산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형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만 한다. 지식 기반 산업²²⁾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섬유 등 기존 주력 산업의 지식 집약화와 함께 생물, 신소재, 정밀화학, 영상산업, 정보통신 등 27개의 지식 기반 성장 산업²³⁾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 조직면에서는 선단식 경영의 대기업 중심에서 전문화된 대기업과 기술과 지식 집약적인 중소 벤처기업의 균형 발전을 통해 강하고 효율적인 산업 조직을 구축해야만 한다.

20) OECD에서는 산업을 R&D 집약도에 따라 4개의 산업군, 즉 고위, 중고위, 중저위, 저위 기술 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21) 현대경제연구원, 『IMF 경제 정보』 IEI 98-44, (1998. 12. 16), pp.31-34.

22) OECD의 연구 자료는 OECD 국가들의 산업의 절반 이상이 지식 기반 산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강하고 효율적인 산업 조직의 구축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화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이 개방화 시대의 무한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정부는 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기술과 지식 집약적인 벤처기업 창업의 활성화를 도울 것이다.²⁴⁾

정부는 2010년까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만들고 사회간접자본·산업·공공 등 분야별 정보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2002년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정보 통신산업의 기초 기반 기술과 핵심 원천 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진입 퇴출 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통신 산업의 투자·경영 효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²⁵⁾

산업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제조업의 비중은 다소 감소할 것이나, 컴퓨터 S/W, 산업 디자인, 경영 컨설팅, 광고, 엔지니어링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 발전하면서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산업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5〉참고).

〈표 5〉 산업 구조의 변화 전망

	(단위 : %)			
	1997	1998	2003	2008
농림수산업	6.0	6.4	5.3	4.1
제조업	32.3	31.4	32.3	32.8
(제조업)	25.7	25.4	24.9	24.4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6.6	6.0	7.4	8.4
기타 서비스업	61.8	62.2	62.4	63.1

자료: 산업자원부, 『21세기 한국 산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 (서울 : 산업자원부, 1998. 12).

23) 지식 기반 산업에는 14개의 지식 기반 제조업과 13개의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이 있다. 지식 기반 제조업에는 메카트로닉스, 항공 우주, 카일렉트로닉스, 정밀 광학, 디지털 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생물, 신소재, 의약, 정밀 화학, 환경, 신에너지 산업 등이 있으며,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에는 영상·음반, 출판, 관광, 디자인, 엔지니어링, 경영 컨설팅, 광고, 소프트웨어, 방송, 정보 통신 서비스, 인터넷,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산업 등이 있다.

24) 산업자원부, 『21세기 한국 산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 (1998. 12).

25) 박길호, "활력 있는 경제와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 『나라경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8년 10월호), pp.20-23.

정부는 산업의 기술과 지식 집약화가 크게 진전되므로, 첨단 기술과 지식 기반 산업의 제조업내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어, 반도체, 정밀 화학, 신소재 등 첨단 기술과 지식 기반 산업의 비중은 1999년 38.5%에서 2008년에는 49.5%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수출 구조도 첨단 지식 기반 산업 위주로 고도화되어, 첨단 지식 기반 산업의 비중은 1998년 26.3%에서 2008년에는 43.7%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정밀 화학, 신소재, 생물, 의약 산업 등이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지식 기반 경제로 탈바꿈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인위적인 투자 확대보다, 우리 경제 내에서 지식의 원활한 생성과 유통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식 과정 체제'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식의 생성과 유통의 중심으로 정부 조직 체계를 전환하고, 국내외 지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원활한 지식 창출을 위한 교육과 학습 제도를 개혁하고, 지식 인프라 구축 중심의 산업 정책으로 전환하고, 지식 가치와 실질적인 전문성을 중시하는 사회 의식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은 지식 경영의 최고 경영자를 선정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한 사내 지식 기반 인프라 구축하고, 사내 학습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식 경영을 추진하고, 기업 내 지식 공유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지식의 가치가 가장 중시되는 지식 기반 경제하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 계발을 해야 한다.

5. 輸出 現況과 展望

작년에 우리나라의 수출은 통관 기준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한 1,332억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35.4% 감소한 933억 달러를 기록하여, 39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도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경제에 무역수지 흑자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올해 정부는 통관 기준으로 수출은 전년대비 0.6%²⁶⁾ 증가한 1,340억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16.8% 증가한 1,090억 달러, 무역수지는 250억 달러의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인한 대부분의 시장의 수요 위축으로 수

26) 작년 국민들로부터 모집하여 수출한 20억 달러의 금을 제외하면, 올해 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2.1%이다.

출 증대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각국의 수입 규제 강화가 우리 수출 증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국의 수입 규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산업 기술 협력과 산업 경제 외교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중소 수출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소량 다품종 수출 체제를 구축하여 틈새 시장을 공략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강화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선진국의 40~60%, 디자인은 60~70% 수준으로, 환율 하락 시 수출 단가가 인상되면 경쟁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지식 기반 고부가가치형 산업 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고, 수출 기업의 기술과 디자인 개발과 품질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²⁷⁾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황금 연휴를 맞는 일본 관광객들을 한국에 끌어 들이기 위해 “쇼핑 기쁨은 2배, 여행 경비는 반으로(Twice the Shopping, Half the Cost)”라는 주제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기획하고, 이 행사를 계기로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리는 2002년까지 한국을 극동의 쇼핑 천국으로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다. 주요 백화점은 물론 면세점과 남대문, 동대문에 있는 쇼핑센터, 웨딩·귀금속 타운, 테마파크, 골프장, 호텔, 사우나, 발 마사지와 머드 마사지 등 건강과 미용과 관련된 업체들까지 이 행사에 참여한다.²⁸⁾ 이처럼 수출 증대를 위하여 제조업만이 아니라, 지식 기반 산업인 유통 산업과 서비스 산업들이 외국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 전략적인 세일에 나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6. 올해 經濟政策 方向과 展望

올해 정부²⁹⁾는 작년부터 시작한 구조 조정의 조속한 마무리와 경기의 본격적 회복 및 대외 신인도의 획기적 제고를 통해, 우리 경제가 2000년 이후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첫째, 지금까지 마련된 구조 개혁의 기본적 틀을 바탕으로 구조 개혁을 내실화하고 우리 경제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둘째,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거시 경제 정책의 적극적 운영 등 경기 진작의 노력을 강화하고, 셋째, 고실업 시대에 대비하여 실업 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협력적인 신노사 문

27) 산업자원부, 『1999년도 무역과 외국인 투자 진흥대책』, (1999. 1).

28) 매일경제신문, “내다 파는 것만 수출은 아니다”, 1999년 2월 1일(월), 7면.

29) 재정경제부, 『1999년도 경제정책방향』, (1998. 12).

화 창출하고, 넷째,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³⁰⁾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내실있는 질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였다.

첫째, 구조 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경제 능력 향상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생산성과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올해 말까지 기업의 부채 비율을 200% 수준까지 낮추어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여 체질을 강화하고, 기업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 조정을 하고, 도덕적 해이의 치유를 위하여 경제적 자유는 보장하되 엄격한 자기 책임의 원칙을 확립한다.

둘째,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통화를 신축 공급하여 금리의 하향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통합 재정수지 적자를 1999년에도 GDP의 5% 수준으로 유지하여 재정이 총수요를 지원하고,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자 금융의 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하고, 소비 지출의 추이에 따라 세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창업과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 산업의 구조 조정 촉진과 고부가가치화와 자본재 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환 시장의 안정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국제 금융체제의 개편 가능성과 유로화 출범 등에 적극 대처하고, 국제 금융 시장의 잠재적 위협 요소 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셋째,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협력적 신노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실업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업자 보호 대책비를 확대하고, 생산성 있는 공공 사업의 적극 발굴하고, 비정부 기관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훈련 바우처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생활 보호 대상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실직자 자녀에 대해 학비 및 중식비를 지원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협력적 신노사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제도와 의식 및 관행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넷째, 지식 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 집약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 역점을 두고, 한국 표준 산업 분류 기준을 지식 기반 경제

30) OECD는 지식기반 경제(Knowledge Based Economy)에 관해 수년간 연구를 계속해 오면서, '지식'을 생산성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기업 내에 존재하는 지식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지식기반 경제의 특징은 첫째, 지식의 '정보화'이다. 정보화된 지식은 체계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컴퓨터 망을 통해 전달도 용이하다는 것이다. 둘째, 지식이나 기술이 대학이나 연구소 등 '지식 창출의 근원지'에 머물러만 있지 않고 실제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셋째, 지식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에 맞게 조정하고, 전자 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인적 개발 투자와 근로자의 자기개발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여 신 지식인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는 기초 연구와 국방 등 공공 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기업은 공공성과 상업성이 함께 있는 분야를 국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기술 집약형 중소, 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선진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한다.

1999년 우리 경제는 구조 조정 및 적극적인 거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입어 연간 2%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하반기 이후에는 본격적인 경제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제 구조 면에서는 생산과 고용창출 등에 있어서 전통적인 산업보다는 서비스 분야의 역할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환율과 임금 등의 하향 안정에 힘입어 3% 수준으로 크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지속할 것이나,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흑자 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완전 개방 경제하에서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거시 경제 정책의 폭과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최근의 저금리 정책은 투자의 활성화와 자본 시장의 활황을 겨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원화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절하시키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저금리 정책은 환율을 올리는 효과보다는 금리 인하로 인한 국내 자본 시장 활황으로 외국 자본의 증권 시장 유입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이 내려가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므로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 정책은, 저금리 정책에 의한 주식 시장의 활황이 제조업의 호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고, 여수신 금리의 차를 좁혀야 하고, 핫 머니의 일시적 대량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구조 조정과 적극적인 거시 경제 정책들이 추진되어 우리 경제가 2000년 이후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경제 위기의 재발 방지와 성공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과 국민적 화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금년 들어 재연된 브라질의 금융 위기가 정부의 재정 개혁 지연과 Minas Gerais 주정부의 연방 정부 채무 지불 유예 선언 등으로 외자 유출이 가속됨에 따라 발생되었던³¹⁾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31) 한국은행, "브라질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해외경제정보』 제99-17호, (1999. 1. 21), p.2.

Ⅲ. 學校 經濟 教育의 必要性과 現況

1. 學校 經濟 教育의 必要性

학교 경제 교육이란, 사회과 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학생들에게 일상 생활 속에서 접하는 경제 현상과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이해력, 즉 경제의 기본 개념 및 경제력 사고 방식을 습득하게 하는 학습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학교 경제 교육의 특성은, 첫째 사회과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학교 경제 교육은 경제학의 지식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경제학 교육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³²⁾

학교 경제 교육의 목적은, 첫째 경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경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둘째, 사회의 민주 시민으로서 조화로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 경제 교육은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시민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경제적인 삶의 향상을 꾀하게 한다. 셋째, 학교 경제 교육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국가의 경제 현상을 이해시키고 국민의 경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에 효율성을 부여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³³⁾

학교 경제 교육의 목표는, 첫째 경제 시민으로서의 경제 생활의 기초적인 경제 지식과 기본 원리를 함양하고 경제 문맹을 퇴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논리적인 사고의 훈련과 경제적인 사고 방식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과 경제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셋째, 학교 경제 교육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데, 정의적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 생활 방식을 가르쳐 주고 건전한 경제적 윤리관과 가치관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다. 넷째, 학생들에게 건전한 경제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경제 문제에 대한 합리적 의사 결정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³⁴⁾

32) 최병모, "학교 경제 교육의 목적, 목표 및 교육과정", 『경제교육연구』, (서울:이태근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1994), pp.118-123.

33) 위의 논문, pp.121-125.

34) 위의 논문, pp.125-136.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근본적으로 경쟁력 있는 경제인과 경영인의 육성을 소홀히 하고 실용적인 경제 교육을 시키지 못함으로써, 실물 부문과 금융 부문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고 하겠다.³⁵⁾ 우리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주범도 아니고, 학생 경제 교육이 지금의 경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러나 경제는 국민의 지적, 의식적 수준에 따라 좌우되며, 교육은 국민의 지적, 의식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실있는 학교 경제 교육의 강화야말로 경제 위기의 근원을 치유할 수 있고 위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원적 처방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³⁶⁾

요즘 청소년들은 종전에 부모를 따라 옷을 사던 것과는 달리 아주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소비 행위자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의 소비 행동은 매우 자연스런 삶의 표현으로서, 소비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청소년은 소비 행동 전과정에서 대개 직관적이며 충동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높다. 소비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합리적으로 스스로 못하는 청소년일수록 기업과 생산자에 이끌려 가는 미련한 소비자로 전락하게 되어, 과시 소비, 모방 소비, 충동 소비 등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된다. 많은 청소년들은 외제 브랜드를 매우 선호하여 과시형 과소비 풍조에 젖어 있다. 청소년들의 잘못된 소비 행태는 우리의 귀중한 자원을 비생산적인 사치 소비품의 생산에 낭비하게 하고, 로얄티 지불로 인하여 외화를 낭비하게 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된다면 그 부작용은 매우 클 것이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학생들의 경제 사회화³⁷⁾ 과정은 그 이후의 성인기의 경제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경제 사회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경제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의 학교 경제 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론만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어른들이 먼저 마련해 주고, 역할 놀이나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터득할 수 있도록 학교 경제 교육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 경제 교육은 학생들을, 현재의 소비 생활을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고, 미

35) 지호준, "IMF 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 교육", 『교육연구』, (서울: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1998.7), p.20.

36) 김정호, "경제 위기 시대 청소년 경제 교육의 방향", 『오늘의 청소년』, (서울:한국 청소년 단체 협의회, 1998년 3월호), p.11.

37)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사회교육연구회편, 『사회교육연구』, (서울:교육과학사, 1994년), p.331.

래의 생산, 소비, 저축 활동과 자산 보유의 경제 생활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 양성³⁸⁾하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 경제 교육으로부터 배운 올바른 소비 의식과 소비 행태가 가정과 사회에서 올바른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학교 경제 교육을 통하여, 경제 생활에 필요한 경제 의식을 형성하고, 일상 생활에서 부딪치는 경제 문제를 합리적 의사 결정을 통해 해결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 학교 경제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과시 소비와 모방 소비와 충동 소비 등의 잘못된 소비 습성을 개선할 때, 시장에서 올바른 경쟁과 질서가 유지되어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위기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건전한 소비로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 경제 교육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2. 學校 經濟 教育의 現況

최근 몇 년동안 미국의 경제가 호황을 누리는 이유는, M&A가 활성화되어 모든 분야에서 거품이 빠지고 구조 조정이 일어났고, 정보, 통신, 금융 산업 등에서 경쟁력 있는 벤처 기업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세계화에 따른 무한 경쟁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살아있는 학교 경제 교육 때문이었다.³⁹⁾

미국의 학교 경제 교육은, 연방 경제 교육 위원회와 48개 주에 있는 주 경제 교육 위원회와 각 주에 있는 290여개의 경제 교육 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학교 경제 교육은 실습 위주의 교육을 전 교육 과정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신문 광고 스크랩, 빙고 놀이, 카드 놀이, Playdough 놀이, 원산지 놀이 등을 초·중등 교실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또한 CD-ROM을 개발하여 경제 교사들에게 보급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경제 교육 방법도 다양하게 개발하여 실용화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⁴⁰⁾

38) G. M. Schuncke., Elementary Social Studies, New York: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8. pp.43-44.

39) 지호준, 앞의 논문, p.23.

40) 김춘선, "해외경제교육계 동향", 『경제교육』,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년 12월), pp.178-179.

미국의 학교 경제 교육의 특성은, 첫째 그 내용이 효율성과 경쟁력 중심이라는 점이다. 둘째, 경제 교육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전국 규모의 방대한 전문 조직을 통하여 학교 경제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 경제 교육은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소홀히 다루고 있고, 경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론을 암기 위주로 가르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시장 경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도 거의 없고, 정부와 기업의 관심도 부족한 실정이다.⁴¹⁾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에 비해 국민들의 경제적 능력 부족이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노출되기 시작하자, 정부가 학교 경제 교육의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와 민간 단체와 학계 등에서 학교 경제 교육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⁴²⁾

그동안 우리나라 학교 경제 교육의 학문적 흐름은, 첫째 학교 경제 교육의 과제와 목표 분야에 연구에 치중한 반면에 교수 학습 방법, 교과적 내용, 구성, 평가 및 교육 주체에 대한 연구에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둘째 학생에 대한 인지 발달과 수업 현장에 관한 구체적인 학습 주제를 바탕으로 교과적 지식 창출에 대한 연구는 적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학교 경제 교육의 교육 과정상의 경향은, 첫째 그 전개 과정에서 국가 사회적 요청의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둘째, 교과 과정의 이론적인 경향이 그대로 실제의 교육 과정 구성에 반영되었다. 셋째, 교육 과정 변화의 과정에서 교육 목표와 실제의 교육 내용 구성 사이의 괴리가 나타났다. 교육 과정의 개정에서 교육 목표는 이론적인 흐름을 따라 변화했으나, 교육 내용의 구성은 기본 개념과 이론을 중심으로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⁴³⁾

1992년에 고시된 현행 제6차 사회과 교육 과정을 보면,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경제 교육이 시작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미시 경제 개념을 중심으로 3, 4, 5학년에 집중 배치하였으며, 중학교의 경우에는 경제 영역을 일반 사회의 다른 영역과 지리 및 역사 영역과 통합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공통 사회' 과목이 신설되고, '경제' 과목을 독립시켰다. 제6차 학교 경제 교육 과정에서는, 경제와

41) 송대회, "청소년 경제교육에 대한 선진국의 노력", 『경제교육』,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6년 12월), pp.4-6.

42)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사회교육연구회편, 앞의 책, pp.297-298.

43) 조영달, "한국 경제사회 변화와 학교경제교육", 『교육월보』 통권 제192호, (서울:교육부, 1997, 12), pp.25-26.

관련된 기본 지식의 이해, 경제 현상과 경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의 신장, 경제적 윤리관과 가치관의 형성, 건전한 경제 의식의 함양과 합리적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능력의 신장을 경제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로 정하고 있는데,⁴⁴⁾ 현행 교육 과정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경제 교육 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시장 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 내용에 있어 학년간 및 학교급간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⁴⁵⁾ 그리고 국민 경제 교육의 관점에서, 유치원 교육과 초·중·고등학교 경제 교육과 사회 경제 교육을 연계시키는 경제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학교 경제 교육 과정은 경제학적 지식에 편중된 인지적인 측면 위주로 되어 있어서⁴⁶⁾, 학생들의 인격 발달에 필요한 경제적 가치, 규범, 태도, 성향 등의 정의적인 요소를 학생들에게 내면화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고, 민주 시민의 양성이라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와 학교 경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한계가 있다.⁴⁷⁾ 특히 중등학교에서의 경제 교육의 문제점은 과연 학교 경제 교육이 실제로 과소비 등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해결하는 데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경제적 가치·태도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이며, 토론 수업과 탐구 학습을 강조하였지만 실제로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며,⁴⁸⁾ 교육 내용에서도 사실에 대한 것보다 개념과 일반화에 관한 것이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학교 경제 교육은 그 특성상 사회적 변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요청을 부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보화 사회에 맞는 경제 교육 방법을 채택해야만 하는 데도 그동안 경제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제 교육 방법의 개선에 소홀하였으며,

44) 최병모, "사회과 교육에서의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 내용 구성을 위한 연구", 『경제교육』,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 7), pp.20-21.

45) 정정도, "시장경제와 학교경제교육의 내용", 『학교경영』, (서울: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교육연구사, 1997. 12), pp.29-31.

46) 지식 위주의 학습에서 습득한 지식으로는 학생들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의사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R. Woolever and K. P. Scott, Active Learning in Social Studies: Promoting Cognitive and Social Growth, Boston, Scott, Foreman and Company, 1988. 참고.

47) 김정호, "경제윤리와 경제교육", 『사회와 교육』 제17집, (서울: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93), pp.107-125.

48) 김정호, "중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 『서울교육』 통권 제147호, (서울: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97. 봄), pp.61-62.

사회과 교사들은 뉴미디어의 교육적 활용에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여, 사회과 과목에서 컴퓨터 보조수업을 가장 적게 활용하고 있다.⁴⁹⁾

또한 내실있고 균형있는 학습 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서 외에 적절한 학습 보충 자료가 활용되어야 하나 보급되어 있는 자료가 거의 없고, 보급된 자료의 활용도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설령 좋은 학습 보충 자료가 개발되어 보급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현재 학교 경제 교육에 배정된 시간의 비중은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수업시간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외에도 입시 위주 교육, 부적절한 교과서 내용⁵⁰⁾, 경제 담당 교사의 전문적 자질 부족과 비과학적 교수방법 등이 고등학교 경제 교육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⁵¹⁾

대학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 때문에, 학생들은 입시에서의 비중이 낮은 경제 분야에 관심이 적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경제 인지력 수준이 높지 못하게 나타나는 등 우리 고등학교 경제 교육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⁵²⁾

IV. 學校 經濟 教育의 方向

社會科 教育은 그 성격과 특성상 어느 부문보다도 사회의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새로운 도전과 요구는 사회과 교육의 한 영역인 학교 경제 교육의 방향에 중요한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경제 교육은 사회 변화로 인한 새로운 도전과 요구를 수용하여 민감하게 대처해야만 한다.⁵³⁾

정부가 설계하는 21세기의 사회는 자유와 민주, 평화와 번영의 가치를 소중히

49) 최선규, "정보화와 경제교육", 『경제교육』,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 7), pp.15-16.

50) 현행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는 대학 교재인 『경제학 원론』보다 예시가 부족하여 개념 이해가 어렵고, 경제 원리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난해하게 설명되어 있어 이해가 어렵다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51) 김경근, 『국민경제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실천 방안』,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6), pp.15-22.

52) 김경근, 『한국 고등학생의 경제 인지력 실태』,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3. 12), pp.109-110.

53) 김경모, "경제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사회와 교육』 제25輯 (서울: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97), p.229.

지키는 한편 투명하고 능률적인 시장 경제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회이다. 이 사회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질을 중요시하고, 사회 공동체의 기반을 존중하는 인간 중심의 사회를 의미한다.⁵⁴⁾

이와 더불어 21세기의 시대적 변화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중요한 특성은 정보화와 세계화이다.

그러므로 학교 경제 교육은 학생들에게 논리적인 사고력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정보처리 능력을 신장시키므로써, 경쟁력 있는 경제 사회와 자유와 민주, 평화와 번영의 가치를 소중히 지키는 사회와 정보화와 세계화 사회에 대비한 사람을 교육하기에 가장 적절한 과목이므로, 학교 경제 교육을 활성화시켜야만 한다.

첫째, 정보화의 물결이 가히 놀라울 정도로 밀어닥치고 있는 지금,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학교 경제 교육은 정보화와 접목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학교 경제 교육이 정보의 수집과 분석과 판단 능력을 제고시키고, 네티즌과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시민성을 제고시켜야 함을 의미하는 한다.⁵⁵⁾

정보화의 힘은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가 복합된 정보 기술에서 비롯되었다. 정보 기술은 지금까지 인간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생활의 기본적 요소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공간적으로는 사이버 공간의 출현시켰고, 시간적으로는 낮과 밤을 파괴하여 24시간이 낮이 되게 하였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중요한 것은, 경제 교육 방법의 개선보다는 교과 내용 측면에서의 개편이다. 현재의 학교 경제 교육의 교과 내용은 산업 사회 위주로 되어 있어,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경제 구조의 변화 부분에 대한 취급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보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학교 경제 교육의 내용이 개편되어야 한다. 학교 경제 교육의 내용은, 정보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다른 점, 정보화 사회와 산업 사회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차이점, 정보 사회가 도래한 원인, 우리의 정보화 수준과 국제간 비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⁵⁶⁾

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와 시장 경쟁의 격화로 현대인들이 생존을 위해 처리해야 할 일은 과거보다 엄청나게 많아진 반면에, 인터넷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서 제공하는 무수한 정보를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또한 소득이

54) 설광언, "국민의 정부의 경제철학과 비전", 『나라경제』,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8. 10), pp.12-14.

55) 조영달, 앞의 논문, p.27.

56) 최선규, 앞의 논문, pp.11-14.

증대되었기 때문에 현대의 1시간의 기회비용은 엄청나게 높아졌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시간의 부족이 일반화되고 시간의 기회 비용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의 시간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기업들은 소비자의 시간 효용을 극대화시켜 주는 상품과 서비스인 創時 商品⁵⁷⁾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⁵⁸⁾ 정보 기술은 시간적으로는 낮과 밤을 파괴하여 24시간이 낮이 되게 하여, 귀한 시간의 공급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경제 교육에서는, 정보화 사회에는 시간의 가치가 커짐에 따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간 개념이 백만분의 일(마이크로)초까지 세분화하고, 상품으로서의 시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르쳐, 정보화 사회에서의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경제 교육 방법을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멀티미디어형 경제 교육 자료가 일반화된다면, 우리나라의 학교 경제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수업이 일반화된다면, 유명 강사에 의한 경제 특강과 현직 경제 교사들의 연수 등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⁵⁹⁾

학교 경제 교육에 멀티미디어 기술의 활용이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는 필요 조건이므로, 앞으로 적극 활용이 요구된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보 기술은 지구촌을 인터넷 시장으로 통합해 가고 있으므로, 학교 경제 교육도 정보화 사회의 기본적인 하부 구조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에 컴퓨터로 공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야 하고,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설치하고, 멀티미디어 교육 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적극적인 교육 투자를 해야만 한다.

정보 통신 기술 혁명에 의해 정보화 사회는 도래하였고,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선진국들이 지식 기반 경제로 이행했던 것처럼, 우리 경제도 정보화 사회에 지식 기반 경제로 이행해야만 한다.

지식은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통해 결합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므로, 지식의 형성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 체계의 구축 정도가 지식 형성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 지수가 선진국 평균에 비해 19.2%에 불과하며, 연구 개발 인력 중 지원 업무 종사자 비중이 7.6%에

57) 創時 商品에는, 활동 시간과 생활 시간을 최대한 절약시켜 주는 상품인 節時 商品, 개인 시간을 극대화시키는 상품인 擴時 商品, 어쩔 수 없이 낭비되는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상품인 活時 商品이 있다.

58) 삼성경제연구소, 『창시 상품 전략』, Weekly CEO Information 제109호, (1997. 9.24).

59) 최선규, 앞의 논문, pp.14-15.

불과하여 일본, 독일, 영국의 평균 25.4%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식 형성을 위한 지식 인프라와 지식 형성 지원 체계의 구축이 미흡하므로, 이미 형성된 지식의 양이 상당한 데도 지식의 성과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⁶⁰⁾

세계 은행은 1998년 10월 4일에 발표한 『98·99 세계 개발 보고서-개발을 위한 지식』에서 후진국들이 빈곤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을 선진국과의 '지식 격차'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의 경제 위기의 원인도 정부와 금융기관과 기업에 지식과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에 빠져 IMF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된 것도 세계 경제의 흐름이 지식 기반 체제로 이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기업·정부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데 있다. '부즈앨런 & 해밀턴' 한국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지식 격차'를 지적하였다.⁶¹⁾

지식 기반 경제란, 거시적 측면에서는 무한한 지식의 생성과 신속한 유통과 손쉬운 활용에 의해 지식이 경쟁력 결정에 핵심적인 생산 요소가 되는 경제이며, 산업 구조 측면에서는 컴퓨터, 전자, 우주 항공과 같은 고도 기술 산업과 교육, 통신, 정보와 같은 지식 집약 서비스의 비중이 증대되는 경제이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한 연구 학습 체계의 혁신과 디지털 혁명으로 대표되는 지식의 기호화 현상에 의한 지식의 생산과 분배 및 활용 조건의 급격한 변화가 지식 기반 경제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기초 조사와 연구 개발을 위한 도구와 장비의 개발 속도 증가와 비용 감소 등의 연구 학습 체계의 혁신으로 지식의 생성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디지털 혁명으로 지식이 정보 인프라를 통해 쉽사리 전달될 수 있는 '정보'로 변환되어, 지식의 전달과 확인과 저장 및 재생산이 손쉽게 되었다.⁶²⁾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식 기반 경쟁력은 종합적으로는 세계 23위, 세부적으로는 활용 기반 부문은 24위(5군), 투입 기반 부문은 12위(3군), 그리고 창출 기반 부문은 26위(5군)로 추정되었다. 지식 기반 경쟁력이 종합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이며, 일본이 2위, 독일은 3위, 프랑스는 4위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7위, 이스라엘이 8위, 대만이 13위 등이 3군에 속하는 동시에 상위권에 포함되

60) 현대경제연구원, 『IMF 경제 정보』 IEI 98-40, (1998. 11. 19), pp.25-29.

61) 강영철, "지식 기반 사회의 도래", 『나라경제』,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8. 12), pp.46-48.

62) 현대경제연구원, 『IMF경제정보』 IEI 98-38 (1998. 11. 4), pp.9-12.

어 있다. 한편 창출 기반 부문의 상위국들에는 인도, 대만, 싱가포르, 이스라엘, 중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 부문에서 26위에 처져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 기반 경쟁력은 종합 순위로는 23위이지만 선진권에 비하면 격차가 심하며 세계 평균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식 기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우리나라의 지식 활용 기반과 창출 기반 부문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⁶³⁾

지식 기반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새로운 지식의 풍부한 생성을 위하여 기업과 정부와 학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식 생성 체제가 필요하고, 둘째 창출되고 획득된 지식의 이해와 습득 그리고 새로운 창출을 위한 기업과 학교와 국가 내의 교육과 학습 제도 개혁이 실현되어야 하고, 셋째 생성된 지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지식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경제 교육을 통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생산 요소인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식의 가치를 존중하고 형식적 학력보다는 실질적인 전문성을 중시하는 신지식인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상 생활과 학업에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공급하고, 남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지식인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창출되고 획득된 지식의 이해와 습득 그리고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하여 학교 교육의 개혁도 실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신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획일적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⁶⁴⁾

정보화가 심화될수록 정신적 황폐와 이로 말미암은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경제 교육은 '건전한 경제 의식의 함양'이라는 목표를 강화해야만 한다. 이전까지의 국가나 학문이나 경제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인간이 경제의 주체가 되는 인간 중심의 학교 경제 교육이 요구된다. 그런데 의식의 변화와 같은 정의적 발달은 무척 더디게 진행되므로, 정의적 학교 경제 교육을 실시하기

63)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지식기반경제하의 지식경쟁력 지수개발에 관한 연구 잠정결과』, (1999, 1 26).

64) 박길호, 앞의 글, pp.20-23.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인내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만 한다.⁶⁵⁾

둘째, 세계화 현상의 심화로 세계가 이미 세계화의 과정(Globalization)을 지나, 세계화된 상태(Globality)에 들어선 지금, 세계화에 따른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학교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 세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는 국수주의적인 사고는 결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상품은 수출하면서 다른 나라 상품의 수입은 기피한다면, 결국 우리의 상품도 수출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부터는 외국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격해서는 안되고,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면 국적이 어디든 “우리 기업”으로 여기고 격려해 주는 의식의 전환과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난 2월 2일에 폐막된 제 29차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WEF) 연차 총회는 “책임있는 세계화⁶⁶⁾(Responsible Globality)”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을 비롯해 40여명의 국가 수반급 지도자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수백명의 각계 거물들이 국제 금융 시장의 안정과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경제 그룹들간의 시각 차만 드러낸채, 세계 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틀은 결국 도출하지 못하였다.

구호로는 “책임있는 세계화”를 외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이번의 회의를 통해, 우리 경제가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확인하였다. 엄연한 현실인 세계화된 상태에서 우리에게서 수많은 기회와 동시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1997년말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만을 보고, 뒤에 숨어 있는 위험을 도외시켰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면에서는 동아시아와 일본과 상호 의존 관계가 긴밀하나, 경기 회복에 있어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 위기 이후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단기간에 경기 침체에서

65) 김경근(1996). 앞의 책, pp.95-101.

66) “책임있는 세계화”란 아시아 금융 위기의 원인이 당사국 국내의 문제뿐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체제상의 문제에도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자고 하는데서 나온 개념이다. 지금 세계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단기 금융자본이 대규 모로, 빠른 속도로 이동함으로써 신흥 국가들에 위기와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 결과 소득 수준이 하루 아침에 반감되고,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금융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 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 “책임있는 세계화”의 핵심 내용이다.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우리 경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⁶⁷⁾ 반면에 동아시아의 수요 변동이 동아시아 역내나 선진국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동아시아 역내나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미국이나 유럽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동아시아의 경제 위기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역내나 일본에의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⁶⁸⁾

냉전 이후 세계 경제 환경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질서 아래, 세계화와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무역과 투자가 시장 통합을 선도해 가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상호 이익과 이해의 균형을 통해서 자유화와 경제 기술 협력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APEC⁶⁹⁾를 통하여 회원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윈윈(win-win)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과거의 일제 식민지 경험 때문인지, 외국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최근 세계 자동차업계의 재편에서 보듯이 합병이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한 세계화가 없이는 선진국 기업조차도 살아 남을 수 없는 판국에, 외국인 투자에 의한 정리 해고 또는 국부 유출⁷⁰⁾ 및 자국 경제의 대외 종속을 두려워하는

67) 작년의 전체 외국인 총투자액 8,852억 달러 중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33.6%인 2,976억 달러였다.

68) 한국은행, 『국제산업연관표로 본 한국 등 동아시아 주요국의 교역구조와 역내국·선진국과의 상호 의존관계』, (1998, 12).

69) APEC는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태지역 12개국 각료들이 최초로 정부간 협력체를 출범시킨 이래,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APEC는 무역 자유화와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지역협력체로 변모하고 있다. 1991년에 중국, 대만, 홍콩이, 1997년에는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칠레가, 1998년에는 러시아, 베트남, 페루가 가입함으로써 회원국 수는 21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세계 전체 인구의 52%인 23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APEC 지역은 세계 전체 GDP와 교역량 비중이 각각 63%와 48%에 달해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APEC의 목표는 지속적인 아·태 경제와 세계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개방적 다자무역질서의 강화이다.

70) 외국인 투자가 과실의 송금, 중간재의 해외 조달, 환율 절상 압력 등으로 인해 국제 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간재의 현지 조달 비중이 높아지고 수출 비율도 증가할 것이고, 해외 모기업으로 과실 송금을 하는 기업도 있지만 반면에 신규 투자를 하거나 재투자를 하는 기업도 있어 과실 송금으로 인한 국제 수지 악화 효과는 상쇄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국내에 첨단 기술과 선진 경영기법을 이전하여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 국제 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일부 부정적인 시각은 바뀌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는 외환 확보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의 선진 기술과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국내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소비자들에게도 상품의 가격 하락에 의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고 선택의 폭을 넓혀 이득을 가져오는 등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분업화 체계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금융 위기를 겪었던 영국, 칠레, 멕시코 등은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여,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져 왔다. 최근에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태국, 말레이시아도 자국의 금융기관을 외국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완화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것은 외국인 투자가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외채 부담 없이 외국 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국내 경제의 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외환 및 금융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특히 투자한 나라에 외환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다국적 기업의 모기업이 현지 자회사에 대해 수출입 금융 및 원자재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외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들도 다른 경제 상황이 같을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많은 나라일수록 외환 위기가 발생하거나 IMF 구제 금융을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를 명확하게 고쳐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정비하고, 규제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외국인 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면 국적이 어디든 “우리 기업”으로 여기고 격려해 주는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의 위기는 신뢰성의 상실이라고 IMF의 수석 부총재인 ‘조셉 스티글리츠’은 진단하였다. 그리고 신뢰성 상실의 주 원인은 사회 전체에 만연한 道德的 解弛라고 꼽았다. 우리의 경제 위기는 세계화에 따른 세계적 기준이 우리의 도덕적 해이를 용납하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고, 경제 위기 때에는 더욱 증대되는 도덕적 해이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위기 극복과 위기 재발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준비가 필요하고, 신의와 성실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해야 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감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국민 문화의 성숙이 요청되며, 국제 기준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의식 구조가 요구되고, 투명성과 책임성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올바른 경제 교육이란 지금까지 정책 당국이 독점해 온 각종 경제 자료들을 국민들에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쉽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경제 정보만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누구든지 합리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⁷¹⁾ 무엇보다도 학교 경제 교육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의 주된 원인인 결여된 책임 의식을 함양시키고 강화시켜야 한다.

세계화는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구촌으로 통합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도래하는 세계화 사회에서 공존하며 경쟁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개념이 아닌 우리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폭넓은 세계관과 인간관을 가진 인간상이 요구되며, 선진 질서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신장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간상이 요구된다.

이제까지의 학교 경제 교육이 한 국가의 건전한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경제적 소양을 강조하였다면, 세계화 사회에서의 학교 경제 교육은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개방적이고 합리적이고 상호 협력적이고 신뢰성 있는 세계 시민 의식과 경제적 소양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화된 상태에서는 기회와 위험이 모두 증대되므로, 학교 경제 교육에서는 세계화에 따른 기회와 위험을 모두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고, 주어진 기회는 잘 활용할 수 있고, 발생 가능한 위험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교 경제 교육은 경제적 시민성 함양을 위하여, 시장 경제 체제를 제대로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만 한다.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 금융 위기가 아시아 지역과 러시아, 중남미 등으로 파급되었으나, 대만은 경미한 영향만 받았다. 태국의 외환 위기 발생 이후 대만 달러도 투기자금의 공격을 받았으나, 대만 정부가 1997년 10월 이후 환율 방어를 포기하고 통화 가치 하락을 용인한 결과,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던 금리는 원래 수준으로 하락하고 주가 하락도 멈추면서 대만 달러화는 소폭 절하에 그쳤고, 실물 경제도 안정되었다. 이처럼 대

71) 오영수, "IMF 시대의 진정한 경제교육", 『학교 경영』, (서울: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1998. 7), p.20.

만 경제가 안정된 배경으로는, 첫째 낮은 대외 차입 의존도와 건전한 금융 시스템과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기조 등 基礎 經濟 興件의 양호, 둘째 자기자본 비율 45%, 총자본 경상 이익률 6.6%의 건실한 중소기업과 효율적인 분업 네트워크, 셋째 유연한 외환 정책과 시장 경제 원리의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 등을 들 수 있다.⁷²⁾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만 경제가 안정된 근본적인 이유는, 대만 경제가 세계 경제 질서인 시장 경제 원리에 기초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환경 분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환경은 생명ियो, 모든 생명의 모체이며,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이고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환경은 지키고 가꾸어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환경문제의 해결은 우리 삶을 구성하는 보조적인 일부분의 해결이 아닌 우리 생명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환경, 그 생명 시대의 개막”이라는 주제로 하남 국제 환경 박람회(ENEXPO 99)가 1999년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경기도 하남시 올림픽 조정, 카누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세계유엔 기구인 유엔 개발 계획(UNDP)과 공동 추진하는 국제 환경 박람회는 지구 환경에 대한 인류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세계인의 축제요, 인간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환경 의식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21세기에는 세계 환경 시장의 규모가 6,000억 달러⁷³⁾로 크게 성장할 것이므로, 미국⁷⁴⁾, 일본, 독일 등 환경 선진국에서는 환경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지원, 육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환경 박람회는, 우리나라가 21세기 환경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고, 낙후되어 있는 국내 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경제 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고, 전국민의 환경 친화적인 마인드로의 전환 및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고, 외국 환경 산업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은 세계적 이슈로 등장하여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72) 한국은행, “臺灣經濟의 安定 背景과 向後 課題”, 『주간해외경제』 제99-3호, (1999. 1.10-1.16), pp.17-26.

73) 국제금융공사 분석에 의하면, 세계환경시장의 규모는 1990년 300억달러에서 2000년 6,000억달러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OECD 분석에 의하면, 세계환경시장의 규모는 1990년의 2,000억 달러에서 연평균 5.5%의 성장하여 2000년에는 3,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74) 미국은 환경 산업을 21세기 중점적으로 육성할 중요 기술 산업 1위로 선정하여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 환경 친화적 소비 패턴인 '지속 가능한 소비'에 관한 인식을 높아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소비'란, "미래 세대의 소비 욕구를 저해하지 않도록 자연 자원 및 독성 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서비스나 제품의 생명주기에 있어서 폐기물이나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미래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가져오게 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소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소비생활의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를 제시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소비 문화로 유도해야 한다.

인간이 지니는 정의적 영역의 특성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형성되므로, 학교 경제 교육의 가치 교육적 영역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내재한 가치 문제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환경에 친화적인 행위의 바탕이 되는 태도와 가치관과 윤리 등을 함양시켜야 한다.⁷⁵⁾

셋째, 정보화와 세계화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따른 학교 경제 교육의 역할이 요구된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율을 존중하면서 자율에 따른 경쟁과 책임을 강조한다는 동일한 원칙에 기초하고 있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다. 민주주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 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시장 경제의 발전을 돕고, 시장 경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가 건실하게 발전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⁷⁶⁾ 그러므로 학교 경제 교육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즉 시장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정치 영역과의 다학문적인 통합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오래 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경제 교육은 체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경제 교육은 일상 생활 체험에 근거하는 체험 교육이었고, 생활 주변에서 항상 접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었던 생활 경제 교육이었다.⁷⁷⁾ 그러나 지금의 학교 경제 교육은 입시를 위주로 많은 부분, 현실과 유리된 추상적인 이론에 치중

75) 남상준, "환경보전과 경제교육", 『경제교육』,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4. 12), p.18.

76) 설광언, 앞의 글, pp.12-14

77) 김상규, "조선시대 아동교육 도서에 나타난 인간중시 경제교육", 『경제교육』,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5. 7), p.25.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경제 교육은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가치관과 경제의 전반적인 지식과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력과 창의력 등을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경제 사회를 교실로, 경제 현실과 경제 행위를 교재로 삼아, 체험 교육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경제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열린 교육이 필요하다. 한 예로, 우리 주변의 흔한 생활 경제 자료인 신문을 활용하는 '신문 활용 교육(NIE: Newspaper In Education)' 방법으로 경제 교육을 진행한다면, 학교 경제 교육의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학습 동기의 유발은 물론 경제 학습에 필요한 생생한 자료의 확보와 제공, 적절한 평가 도구의 마련 등 교육 활동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유용할 것이다.⁷⁸⁾

그러나 학교 경제 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 경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다. 경제 현상을 인식하고 분석하고, 경제 문제의 해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인 경제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認知 수준을 제고하는 요인으로는, 학습자의 수준을 잘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수 방법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⁷⁹⁾, 학교 경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교사는 경제 학습 내용과 연관된 학생들의 경제 개념의 형성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경제 개념 습득 과정에서 학생들의 심적인 저항이나 의도하지 않은 강화가 일어나면, 바람직한 민주 시민, 올바른 경제인으로서의 육성이라는 학교 경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학생들의 경제적 경험에 기초한 다양한 예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경제 개념을 교수해야만 한다. 기본적으로 교수 학습은 학생들의 처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교사는 언제나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지닌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한다.

78) 허병두, "신문을 활용하는 학교경제교육", 『경제교육』,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 7), pp.89-99.

79) 전홍렬, "경제 개념 인지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와 교육』제17輯 (서울: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93), pp.83-106.

참 고 문 헌

- 강영철.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나라경제』,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8, 12, pp.46-48.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지식기반경제하의 지식경쟁력 지수개발에 관한 연구 잠정결과』, 1999, 1, 26.
- 김경근. 『한국 고등학생의 경제 인지력 실태』,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3, 12.
- _____ 『국민경제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실천 방안』,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6.
- 김경모. "경제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사회와 교육』 제25집, 서울: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97, pp.213-232.
- 김상규. "조선시대 아동교육 도서에 나타난 인간중시 경제교육", 『경제교육』,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5, 7, pp.7-25.
- 김정호. "경제윤리와 경제교육", 『사회와 교육』 제17집, 서울: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93, pp.107-128.
- _____ "중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 『서울교육』 통권 제147호, 서울: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97, 봄, pp.58-63.
- _____ "경제 위기 시대 청소년 경제 교육의 방향", 『오늘의 청소년』, 서울:한국청소년 단체 협의회, 1998, 3, pp.8-13.
- 김춘선. "해외경제교육계 동향", 『경제교육』,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 12, pp.178-180.
- 남상준. "환경보전과 경제교육", 『경제교육』,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4, 12, pp.7-18.
- 노동부. 『1999년 종합 실업 대책』, 1999, 1, 19.
- 매일경제신문. "내다 파는 것만 수출은 아니다", 1999년 2월 1일(월).
- 박길호. "활력 있는 경제와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 『나라경제』,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 연구소, 1998, 10, pp.20-23.
- 산업자원부. 『21세기 한국 산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 1998, 12.
- _____ 『1999년도 무역과 외국인 투자 진흥대책』, 1999, 1.
- 삼성경제연구소. 『창시 상품 전략』, Weekly CEO Information 제109호, 1997, 9, 24.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사회교육연구회편. 『사회교육연구』, 서울:교육과학사, 1994.

- 설광언. "국민의 정부의 경제철학과 비전", 『나라경제』,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8. 10, pp.12-14.
- 송대희. "청소년 경제교육에 대한 선진국의 노력", 『경제교육』,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6. 12, pp.4-6.
- 송병락. 『한국경제론』, 서울:박영사, 1995.
- 오영수. "IMF 시대의 진정한 경제 교육", 『학교 경영』, 서울: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1998. 7, pp.18-20
- 재정경제부. 『1999년도 경제정책방향』, 1998. 12.
_____ 『1998년중 외국인 투자 동향』, 1999. 1.
- 전홍렬. "경제 개념 인지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와 교육』 제17집, 서울: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93, pp.83-106.
- 정정도. "시장경제와 학교경제교육의 내용", 『학교경영』, 서울: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교육연구사, 1997. 12, pp.28-32.
- 조선일보. "정부-IMF 합의", 1999년 2월 4일(목)
- 조영달. "한국 경제사회 변화와 학교경제교육", 『교육월보』 통권 제192호, 서울:교육부, 1997. 12, pp.24-27.
- 지호준. "IMF 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 교육", 『교육연구』, 서울: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1998. 7, pp.20-24.
- 최병모. "학교 경제 교육의 목적, 목표 및 교육과정", 『경제교육연구』, 서울:이태근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1994, pp.118-136.
_____ "사회과 교육에서의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 내용 구성을 위한 연구", 『경제교육』,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 7, pp.20-54.
- 최선규. "정보화와 경제교육", 『경제교육』,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 7, pp.7-19.
- 한국은행. 『국제산업연관표로 본 한국 등 동아시아 주요국의 교역구조와 역내국·선진국과의 상호 의존관계』, 1998. 12.
_____ "臺灣經濟의 安定 背景과 向後 課題", 『주간해외경제』, 제99-3호, 1999. 1.10-1.16, pp.17-26.
_____ 『브라질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해외경제정보 제99-17호, 1999. 1. 21.
- 현대경제연구원. 『IMF 시대, 중산층의 생활과 의식 변화』, 1998. 6.
_____ 『IMF 1년: 가정경제 어떻게 변화했나』, 1998. 11. 13.

- _____ 『IMF 경제 정보』, IEI 98-38, 1998. 11. 4.
- _____ 『IMF 경제 정보』, IEI 98-40, 1998. 11. 19.
- _____ 『IMF 경제 정보』, IEI 98-44, 1998. 12. 16.
- _____ 『IMF 경제 정보』, IEI 99-03, 1999. 1. 28.
- 허병두. "신문을 활용하는 학교경제교육", 『경제교육』,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민
경제교육연구소, 1997. 7, pp.89-99.
- Banks, J.A.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Inquiry, valuing, and
decision-making*, 2nd ed., New York: Longman, 1990.
- Barth, J. I., et al. *Principles of Social Studies*,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Lanham, 1984.
- FINANCIAL TIMES. "Hidden dangers of South Korean recovery", 1999. 1.
28.(Th).
- Kaltsonis, T. *Teaching Social Studies in the Elementary School - The Basis
for Citizenship*,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1987.
- Schuncke, G.M. *Elementary Social Studie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8.
- Woolever, R. and Scott, K. P., *Active Learning in Social Studies: Promoting
Cognitive and Social Growth*, Boston: Scott, Foreman and Company,
1988.

Abstract

Directions for Economy Education in School
to Meet the Social Change

Yong-kyung Park

In order to prepare the foundation to revive our economy, the government set the basic directions which are to promote the movement to a knowledge based economy and to prepare a qualitative growth base. In the knowledge base economy, as people form and manage the 'knowledge' to affect the competitive power, system, organization and culture of the society, the education to form human resource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21st century. The necessity of economy education in school is very important. It helps students make rational consumer choices, analyze economic problems scientifically when they grow up, make their opinion to minimize uneffective factors and helps to promote an upright economic consciousness. Also, the sudden change of our society that characterizes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ization asks the important change of the direction of economy education in school that is one field of social studies.

First, to develop an information based society, economy education in should be a vital component. In order to help with the understanding of an informationized society, the content of school economy education should be changed. Also, using multimedia educational data and the internet, the teaching way of it should be improved.

Second, to foster the consciousness of a cosmopolitan society according to globalization, economy education inschool is necessary. It is necessary for a shift of consciousness, that is we must not reject the foreign goods unconditionally. Also, in order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when foreign companies do business in our country, we should regard them as 'our companie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Third, to prepare the 21st century society that characterizes the globaliza-

tion and informationization, it needs urgently the progress of the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together. Therefore the role of economy education in school is required.

Most of all, the role of a teacher who has the cool-headed and warm-hearted is very important.